松洞影堂에 秘藏되어 있는 또하나의 全身像에서도 그 緣由를 찾아볼 수 있다。즉 題贊으로 보아④ 嘉禎 丙戌에 이 麻田舊本系의 肖像에서 摹本했느니라고 짐작되는 全身像에서 다시 肅宗三十七年(一七一一)에 重摹한 이 全身像은 그 像容으로 보아 上半身은 衣褶과 設彩에 이르기까지 一見해서 이 麻田舊本을 改摹한 亞流作이라는 것을 直感할 수 있게 해준다。다만 다른것은 麻田舊本의 上半身像에 下半身을 나타낸것만이 달라졌을 뿐이다。이 下半身을 나타낸데 대해서는 孝宗五年에 後孫李曈이 畵伯金鳴國을 시켜서 下半身像을 나타낸 肖像을 그리게 했다⑤는 說이 있고 英祖三十二年에 李秀玉等이 이것을 다시 重摹해서 壽松洞影堂에 奉安했다고 한다。그러나 現在의 壽松洞影堂奉安本은 麻田影堂舊本과는 衣褶이 凡俗해졌을 뿐만 아니라 像容도 그傳神하는 妙法을 따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서보던지 題贊內容으로 보던지⑥ 壽松洞 奉安本은 이들中에서도 가장 뒤늦은것으로서 正祖三年(一七七九)에 重摹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題贊中「崇禎紀元後三己亥」의 三字를 뭉갠 자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 紀年을 信憑할 수도 없을듯하다。

어쨌던 이러한 여러重摹本들과 比較해보면 이 麻田影堂舊本은 적어도 十七世紀以下로 내려갈 수가 없을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韓山李氏宗中에서는 이 麻田影堂舊本이 壬亂때 日本軍에게 掠奪되었다가 牧隱의 外裔孫金山僉使 呂祐吉이 通信使로 赴日했던 길에 江戶에서 이 肖像을 發見해서 奉安하고 돌아온 原本이라고 믿고 있다⑦ 그러나 이 問題에 대해서는 이것을 확실히 信憑할 資料가 아직 없다고 해야겠으며 앞으로 稿를 새로히 해서 詳考해볼까 한다。

附記 添付寫眞이 不完全해서 傳神한 牧隱의 風貌를 헤아려보기 어렵게 되었음을 謝過함

註

① 京畿道連川郡麻田에 있는 牧隱影堂

② 李勳求 牧隱李穡先生傳 八八面

③「曬畵伯 崔根培 依此本謹寫三本各奉安于 德山 樓山影堂 長湍 吳李陵 平山 詠歸祠」

④「嘉禎丙戌春外孫觀察使金希壽爲左議政李公惟淸書」「崇禎紀元後八十四年辛卯十一月 日十二代孫韓平君基泰來守長湍家庙遺像改模奉安于臨江書院」

⑤ 李勳求 牧隱李穡先生傳 八九面

⑥「崇禎紀元後三巳亥三月上澣 後孫前大司諫敬玉書」

⑦ 許眉叟의 文集中에 이事實이 摘錄되었다하나 이를 밝힐 겨를이 없었다。(李勳求 牧隱李穡先生傳 八九面)

〔追記〕 이 改幀記는 거의 根據가 없는 것이라고 宗會여러분의 말씀이 있음으로 再考하여야 할 것임。

간다라佛像의 一例

秦 弘 燮

近來에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간다라佛像을 過眼한 일이 있다(註) 獨立된 尊像이 아니고 어느곳에서 削離한 菩薩立像으로 右側面은 上下 垂直으로 切斷되었고 胸部以下는 刻線이 희미하다。石質은 간다라佛 特有의 藍黑色의 片岩이다。

頭髮은 波狀形인데 束髮하였으며 드러난 눈이나 높은 鼻梁이나 顔面이 前面보다도 側面이 더 넓

은 點等 간다라佛의 特徵을 잘 간직하고 있는 法衣는 通肩인데 衣紋은 左腋下에서 三線이 放射狀으로 陰刻되었고 左腹部에도 數條의 陰刻 衣紋線이 있는듯하다。法衣는 발목까지 내려온듯 하나 무릎에서 한번 두다리를 따로따로 묶어서 무릎밑은 바지를 입은것같이 보이나 衣紋線이 없어서 자세한 點은 알 수 없다。左手는 胸前에서 팔꿈치를 直角으로 꾸부려 右側 어깨附近에서 水瓶인듯한 것을 받치고 있는듯 하고 右手 亦是 그것을 잡고 있는듯 하나 右側面 切斷으로 因하여 分明치 않고 水瓶같이 보이는 것과 함께 右側面切斷과 同時에 上下로 切斷되고 있다。두 발은 若干 벌리고 있는데 左足은 前面을 向하였고 右足은 비스듬이 밖을 向하고 있다。像 全體는 正面直立이 아니고 上半身을 若干 右로 들고 있다。그래서 萬若 右側 切斷된 部分에 如來像이 있었다고 想像한다면 三尊을 이루었을지 모른다。臺座는 方臺로서 彫飾은 아무것도 없다。

以上과 같이 本像이 秀作은 아니나 石質이나 手法이 간다라佛像의 樣式을 如實히 보여주었고 姿勢도 自由로운 表現을 하고있다。좀더 形態가 完全하고 刻線이 明瞭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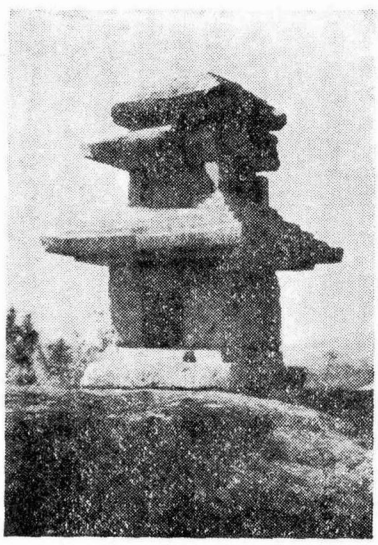
全高 二〇·六㎝ 頭高 四㎝ 臺高 二·五㎝
臺幅 五×四·二㎝ 胸幅 三㎝

〔註〕本佛像은 延世大 閔泳珪敎授가 所藏하고 있다。

月城郡 吾也里 三層石塔

朴 日 薰

慶州서 北쪽으로 三十里距離의 月城郡 川北面 吾也里 內室部落은 東쪽 독담山 西麓에 展開되었고 이 部落의 뒤 山中腹에 若干의 平坦地帶에 高三·六m 幅(東西)五·四六m 長(南北)七·二六m의 花崗石巨巖이 雄座하였다。그 上面은 若干 平面을 이루었고 거의 中心部分에 三層小塔이 建立되어 있다。塔材가 一部 缺失되어 現在 完全한 모습의 塔은 못되지만 構造와 樣式에 있어 一般型塔과 다른 點이 있어 紹介하고져 한다。



이塔은 自然巨巖을 基盤으로하여 初層塔身 받침은 一個一石의 別石으로 되었고 南向으로 龕室을 設置하였다。바닥은 받침上面이 되었고 前面에 兩扉가 設置되어 있었으나 門扉도 없어지고 上下로 귀틀만 남아있다。門귀틀 下部것은 塔身받침에 造出되었고 上部는 塔身에서 처마같이 角形으로 一字로 突起되어 兩端에 귀틀 구멍이 파여졌다。龕室은 高 三七·五㎝ 幅 三一·四㎝ 奧行 三一㎝로 되었으나 內部에 들어갈수록 幅이 若干 줄어들고 天井도 낮아졌다。室內에 信仰의 對象으로 安置되었으리라고 믿어지는 佛像은 이미 없어졌다。

屋蓋石은 一層과 二層은 各四個一石이고 三層은 一石으로 되었다。塔身은 一、二層은 完存하나 三層塔身이 아주 缺失되어 現在 二層屋蓋위에 三層屋蓋石이 얹혀있다。

各層屋裏의 받침은 一段으로 되고 各層落水面은 一、二層이 三段、三層이 四段 層級이 上部로 向하여 遞減되어 甎築塔樣式으로 造出되었다。二層塔身은 下部에 二段받침과 塔身四隅에 隅柱와함께 一石으로 造出되었는데 매우 重厚한 手法으로 되었다。初層屋蓋上에 놓인 外貌는 塔身받침이 初層屋蓋落水面에 造出된 遞減에 맞추었기 때문에 五段의 層級으로 보인다。三層屋蓋上面에는 徑 二〇·五㎝ 深 一〇㎝의 孔穴이 있으나 相輪部는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塔의 初層屋蓋는 完全하나 二、三層은 簷端과 轉角이 缺失되었고 石材는 各層이 花崗石으로 되었으나 初層塔身만이 水成岩으로 되어 異彩로워 或은 後補가 않인가 推測된다。

慶州에 許多히 數많은 新羅時代의 石塔이 遺存한中 模甎石塔으로서 芬